

제 4 교시

사회탐구 영역(윤리와 사상)

성명 수험 번호 ----- 제 [] 선택

윤리와 사상

1. 다음 가상 대화의 스승이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

- ①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[心齋] 만물을 평등하게 관조해야 한다.
- ② 인위적인 것을 모두 버리고 자연의 이법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.
- ③ 열반에 도달하기 위해 나와 만물의 상호 의존성을 자각해야 한다.
- ④ 인의를 알 수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본성을 변화[化性]시켜야 한다.
- ⑤ 선한 마음을 확충하여 의로운 행위를 반복적으로 실천해야 한다.

2. (가)의 현대 서양 사상가 갑, 을의 입장을 (나)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, A~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<보기>에서 고른 것은? [3점]

(가)	<p>갑: 사람은 존재 이후에 스스로가 원하는 무엇이기에 때문에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것 외엔 아무것도 아니다. 이것이 실존주의의 제1원칙이다.</p> <p>을: 개선론이란 특정한 상황이 어떻게든 나아질 수 있다는 견해이다. 그것은 선의 적극적인 수단을 탐구하고,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창조적 지성을 장려한다.</p>
(나)	<p>사상가 갑, 을의 입장을 탐구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범례> □ : 출발 조건 ◇ : 판단 내용 → : 판단 방향 ○ : 사상가의 입장</p> <p>Flowchart: A (diamond) leads to B (diamond) and C (diamond). A leads to B via '예' (Yes). A leads to C via '아니요' (No). B leads to '갑의 입장' (square) via '예'. C leads to '을의 입장' (square) via '예'.</p>

- <보 기>
- ㄱ. A: 미리 정해진 보편적 원리에 따라 행동을 결정해야 하는가?
 - ㄴ. B: 자유에서 비롯된 불안은 실존 회복의 계기가 되는가?
 - ㄷ. B: 인간은 자유롭기에 항상 주체적 선택과 결정을 하는가?
 - ㄹ. C: 도덕적 인간은 선행하는 방향으로 성장해 가는 사람인가?

- ① ㄱ, ㄴ ② ㄱ, ㄷ ③ ㄴ, ㄷ ④ ㄴ, ㄹ ⑤ ㄷ, ㄹ

3. 고대 동양 사상가 갑,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 [3점]

갑: 아침에 도(道)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. 천하에 도가 행해지면 예악과 정벌이 천자로부터 나오고, 도가 행해지지 않으면 예악과 정벌이 제후로부터 나온다.

을: 도는 늘 무위하지만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다. 왕이 그것을 잘 지키면 만물이 저절로 자라난다. 욕심이 일어나면 나는 장차 이름 없는 질박함[樸]으로 진정시킬 것이다.

- ① 갑: 예는 사회 제도를 제외한 개인적 행위에 국한하여 적용된다.
- ② 갑: 인자(仁者)는 타인을 사랑할 뿐 결코 미워해서는 안 된다.
- ③ 을: 통치자는 사회적으로 규정된 명분에 맞는 품성을 지녀야 한다.
- ④ 을: 덕에 따른 삶을 바탕으로 정치적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.
- ⑤ 갑과 을: 현자(賢者)를 숭상해야 백성들이 서로 다투지 않는다.

4. 고대 서양 사상가 갑, 근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?

갑: 아무도 자발적으로 악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. 아름다운 것과 좋은 것을 아는 사람은 결코 그 반대의 것을 택하지 않을 것이다. 아름다운 것과 좋은 것에 대하여 무지한 사람이라면 그것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실패하게 될 것이다.

을: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군주의 지배하에 두게 하였다. 우리가 무엇을 행하게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를 지시해 주는 것 역시 오직 고통과 쾌락일 뿐이다.

- ① 갑: 도덕적 진리는 명확하게 인식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.
- ② 갑: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도 그것을 의욕하지 않을 수 있다.
- ③ 을: 쾌락과 고통은 개인의 행위뿐만 아니라 사고까지 지배한다.
- ④ 을: 공리의 원리는 정부 정책이 아닌 개인의 행위에만 적용된다.
- ⑤ 갑과 을: 각자의 영혼을 가꾸는 일이 최상의 도덕적 과제이다.

5. 동양 불교 사상가 갑,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갑: 인연(因緣)으로부터 발생하지 않은 존재는 단 하나도 없다. 그러므로 모든 존재는 공(空) 아닌 것이 없다. 만일 모든 것이 공하지 않다고 한다면 생멸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.

을: 식(識)의 전변(轉變)은 모두 허망한 분별이다. 그것에 의해서 분별되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. 그러므로 모든 것은 오직 식일 뿐[唯識]이다.

- ① 갑: 모든 현상은 연기로 설명되므로 생성과 소멸은 실재한다.
- ② 갑: 중도는 유에 속한 극단도 아니고 무에 속한 극단도 아니다.
- ③ 을: 인식하는 나와 인식되는 세계는 모두 의식과 독립적이다.
- ④ 을: 맑고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일체의 식을 제거해야 한다.
- ⑤ 갑과 을: 구체적 사물은 고유한 성질을 지니므로 서로 구별된다.

2 (윤리와 사상)

사회탐구 영역

6. (가)의 고대 서양 사상가 갑, 을의 입장을 (나) 그림으로 표현할 때, A~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<보기>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? [3점]

(가)	<p>갑: 동굴의 비유에 따르면 죄수는 동굴 바깥으로 기어올라 가서 물속에 비친 상(像)들, 이것들의 실물들, 하늘의 별들 그리고 태양 자체를 순서대로 보게 된다.</p> <p>을: 우리가 추구해야 할 좋음은 인간적인 좋음이므로 검토해야 할 덕은 인간적인 덕, 즉 신체의 덕이 아니라 영혼의 덕이다. 그렇기에 행복은 영혼의 활동이다.</p>
(나)	

<보 기>

ㄱ. A: 본래 비이성적이지만 이성 따를 수 있는 영혼의 부분이 있다.
 ㄴ. B: 정치적 공동체 없이는 개인의 자족적 삶은 불가능하다.
 ㄷ. B: 좋음이 무엇인지 아는 덕은 철학자만이 지닌 지혜이다.
 ㄹ. C: 개별적 좋음만 있을 뿐 이것과 독립된 보편적 좋음은 없다.

- ① ㄱ, ㄷ ② ㄱ, ㄹ ③ ㄴ, ㄹ
 ④ ㄱ, ㄴ, ㄷ ⑤ ㄴ, ㄷ, ㄹ

7. 고대 서양 사상가 갑, 근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<보기>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?

갑: 내가 말하는 쾌락은 몸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으로부터의 자유이다. 왜냐하면 식탁 위에 풍성하게 차려진 맛있는 요리가 쾌락적인 삶을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.

을: 한 종류의 쾌락이 다른 쾌락보다 가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공리의 원리에 부합한다. 따라서 쾌락을 측정할 때 양에만 의거해야 한다고 여기는 것은 불합리하다.

<보 기>

ㄱ. 갑: 참된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성적 숙고가 필요하다.
 ㄴ. 을: 많은 불만족을 동반하지만 질적으로 뛰어난 쾌락이 있다.
 ㄷ. 갑과 을: 쾌락은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궁극적 목적이다.

- ① ㄱ ② ㄷ ③ ㄱ, ㄴ ④ ㄴ, ㄷ ⑤ ㄱ, ㄴ, ㄷ

8. 중국 유교 사상가 갑,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? [3점]

갑: 마음은 몸을 주재한다. 성(性)은 마음의 본체가 되고 정(情)은 마음의 작용이 된다. 그러므로 마음은 움직임과 고요함을 관통하여 없는 곳이 없다.

을: 마음은 몸을 주재한다. 마음이 텅 비고 신령하여 밝게 지각하는 것을 이른바 본연의 양지(良知)라고 한다. 이러한 양지가 감응하여 움직이는 것을 의념[意]이라고 한다.

- ① 갑: 성은 마음의 본체이므로 그 작용인 정을 포괄하고 통솔한다.
 ② 갑: 인욕을 제거하기 위해 본연지성의 차이를 바로잡아야 한다.
 ③ 을: 내 마음의 양지가 내린 판단은 의식적 추론 과정의 결과이다.
 ④ 을: 치지는 양지를 각각의 사물마다 온전하게 실현하는 것이다.
 ⑤ 갑과 을: 마음을 벗어나 외부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이치는 없다.

9. 고대 서양 사상가 갑, 사회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<보기>에서 고른 것은? [3점]

갑: 가정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공동체이고, 마을은 가정들로부터 생겨난 공동체이며, 국가는 마을들로 구성된 공동체이다. 국가는 완전한 자족이라는 단계에 도달해 있다. 국가는 생존을 위해 생겨났지만 좋은 삶을 위해 존재한다.

을: 사람들이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권리들을 사회에 양도하는 이유는 재산을 보존하는 데 있다. 입법자들이 시민의 재산을 빼앗거나 노예 상태로 만들고자 할 경우 시민은 새로운 입법부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.

<보 기>

ㄱ. 갑: 인간 본성은 국가보다 큰 공동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.
 ㄴ. 을: 자연 상태에서 각자의 사건에 대해 판단할 주체는 없다.
 ㄷ. 을: 법을 제정하는 권력과 집행하는 권력은 분리되어야 한다.
 ㄹ. 갑과 을: 국가의 목적은 시민을 도덕적 삶으로 인도하는 데 있다.

- ① ㄱ, ㄴ ② ㄱ, ㄷ ③ ㄴ, ㄷ ④ ㄴ, ㄹ ⑤ ㄷ, ㄹ

10.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?

신은 곧 자연이며 실체이다. 개체, 즉 유한하고 특정한 존재는 실체의 양태이다. 신적 본성의 필연성으로부터 무한히 많은 것들이 무한히 많은 방식으로 따라 나와야만 한다.

- ① 신적 본성은 자연법칙을 매개하지 않아도 작용할 수 있다.
 ② 욕망, 사랑, 지성을 모두 가진 개체만이 실체의 양태가 된다.
 ③ 신적 본성을 표현하는 양태의 수는 셀 수 있을 정도로 유한하다.
 ④ 신의 선택과 결정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세계는 설명되지 않는다.
 ⑤ 사건 사이에는 실제적 인과 관계를 제외한 다른 방식은 불가능하다.

11. 다음 가상 편지를 쓴 한국 유교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사랑하는 제자에게

자네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점을 바로잡고자 이 편지를 보내네. 인의예지(仁義禮智)는 사람의 마음속에 덩어리로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네. 맹자께서 “생명[生]을 버리고 의를 취한다.”라고 하셨는데, 태어날 때부터 한 덩어리의 의가 마음속에 있다면, 어떻게 그것을 취할 수 있겠는가? 또한 『예기』에서 “봄과 가을에는 예악(禮樂)을 가르친다.”라고 하였는데, 예가 마음속에 있다면 무엇 때문에 배우겠는가? 이처럼 인의예지의 이름은 반드시 일을 행한 뒤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유념하시게.

- ① 선을 좋아하는 본성을 발휘해야 선악을 택하는 권한이 부여된다.
- ② 인간의 욕구는 도덕적 실천을 위한 삶의 추동력이 될 수 없다.
- ③ 영지(靈知)의 기호는 상황에 따라 선이나 악으로 흐를 수 있다.
- ④ 수오지심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의가 성립될 수 있다.
- ⑤ 인간의 자유 의지(自主之權)로 인해 행위의 공과(功過)가 생겨난다.

12.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? [3점]

선의지는, 우둔한 머리와 결단력 없음과 같은 타고난 결함으로 인해 또는 질병과 가난과 같은 불운으로 인해, 자신의 의도적 목적을 관철할 능력이 완전히 결핍될 수도 있다. 그렇다면 이 의지는 최대한 노력해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그저 의지로서만 남을 수도 있다. 그렇다 해도 이 의지는 자기 안에 자신의 완전한 가치를 지닌 어떤 것이다. 이 가치에 유용성이나 무익함은 아무 것도 덧붙이거나 덜어낼 수 없다.

- ① 선의지의 선은 의욕 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욕함 자체에 있다.
- ② 모든 선의지에게는 외적 강제뿐만 아니라 내적 강제도 불필요하다.
- ③ 도덕 법칙은 의무의 형식뿐만 아니라 의무의 실행 방법까지 결정한다.
- ④ 확고한 준칙을 세운 인간이라면 누구나 정언 명령을 따르고자 한다.
- ⑤ 행위자의 합리적 목적에서 비롯된 행위는 모두 정언 명령에 합치한다.

13. 사회사상가 갑,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갑: 자유는 내 활동에 어느 누구도 간섭하지 않는 상태에서 한 사람이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영역이다. 불간섭의 영역이 넓어질수록 내 자유의 영역이 넓어진다.

을: 자유는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주종적 지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다. 권력자의 자의적 지배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적 제약을 늘릴 수밖에 없다.

- ① 갑: 선의의 이타적 간섭이라도 자유에 대한 침해로 간주된다.
- ② 갑: 진정한 자유의 영역은 타인의 간섭이 부재한 영역에 비례한다.
- ③ 을: 시민들이 누리는 자유와 권리는 자연권에 의해 보장된다.
- ④ 을: 자유는 시민들의 참여에 의한 헌법의 제정을 필요로 한다.
- ⑤ 갑과 을: 국가는 법에 의해서만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.

14. 한국 불교 사상가 갑,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<보기>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? [3점]

갑: 더러움과 깨끗함은 그 본래 성품이 둘이 아니고 참과 거짓 또한 서로 다르지 않으므로 하나[一]라고 한다. 이 둘이 없는 곳에서 법(法)은 진실하며 허공과 다르므로 스스로 신령스럽게 아는 성품이 있으니 이를 마음[心]이라 한다.

을: 진리에 들어가는 천 가지 문이 결국에는 선정(定)과 지혜[慧]를 떠나지 않는다. 본체[體]는 작용[用]에 의존하므로 선정은 지혜를 떠나지 않고, 작용은 본체에 의존하므로 지혜는 선정을 떠나지 않는다.

<보 기>

ㄱ. 갑: 다양한 종과 간 갈등을 화해하여 단일한 교리로 통합해야 한다.

ㄴ. 을: 사물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지혜 아닌 선정만이 요구된다.

ㄷ. 을: 부처의 마음[禪]은 마음으로 전하므로 스승[祖師]이 필요하다.

ㄹ. 갑과 을: 깨달음을 위해 언어 자체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.

- ① ㄱ, ㄴ ② ㄴ, ㄹ ③ ㄷ, ㄹ
- ④ ㄱ, ㄴ, ㄷ ⑤ ㄱ, ㄷ, ㄹ

15. (가)의 사회사상가 갑, 을, 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(나) 그림으로 표현할 때, A~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 [3점]

(가)	<p>갑: 정부 기능의 확대는 소비 성향 및 투자 유인의 조절과 관련하여 반드시 필요하다. 광범위한 투자의 사회화는 완전 고용의 목표에 근접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다.</p> <p>을: 정부가 시장의 자생적 질서에 직접 간섭하여 개선을 시도하는 것은 결코 합리적이지 않다. 국가의 임무는 경쟁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조건을 만드는 일이다.</p> <p>병: 프롤레타리아가 혁명을 통해 지배 계급이 되어 낡은 생산 관계를 폐지하면, 그들은 이것과 함께 계급적 대립의 존재 조건과 계급 일반 또한 폐지하게 될 것이다.</p>
(나)	<p>〈법 레〉</p> <p>→ : 비판의 방향 A~F : 비판의 내용</p> <p>〈예 시〉</p> <p>① 갑 → A → 을 A는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임.</p>

- ① A: 정부의 적극적 개입 없이는 시장 실패를 교정할 수 없음을 간과한다.
- ② B: 시장의 자율성만으로는 유효 수요 창출이 불가능함을 간과한다.
- ③ C와 E: 경제적 평등의 실현을 위해 국가가 영속되어야 함을 간과한다.
- ④ D: 대규모 실업은 고용 시장에 대한 방임에서 비롯됨을 간과한다.
- ⑤ F: 노동자의 소외가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에서 기인함을 간과한다.

4 (윤리와 사상)

사회탐구 영역

16. 중세 서양 사상이 갑,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?

갑: 만일 신이 인간의 최고선이라고 한다면, 그 최고선을 구하는 것이 잘 사는 일이다. 지상에서 선한 생활에 따르는 평화를 누릴 때에도 행복하다고 하지만, 이런 행복은 천상에서의 행복에 비하면 불행에 불과하다.
 을: 인간의 자연적 본성을 뛰어넘는 행복은 오직 신성(神性)에 대한 참여에 의해서만 얻어질 수 있다. 이러한 행복은 신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며, 이것으로 이끌어 주는 활동을 가능케 하는 원리를 종교적 덕이라 부른다.

- ① 갑: 자신의 힘만으로 참된 선을 실현하면 지복에 이를 수 있다.
- ② 갑: 선의 원천은 신이지만 자유 의지는 인간 자신에게서 유래한다.
- ③ 을: 도덕 활동과 지적 활동만으로는 초자연적 행복에 이를 수 없다.
- ④ 을: 믿음·소망·사랑의 덕은 자연적 본성만으로도 성취 가능하다.
- ⑤ 갑과 을: 신의 계시를 통하지 않고서는 신이 존재함을 알 수 없다.

17.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? [3점]

적의 훌륭한 품성은 우리에게 해롭지만 존경심을 유발할 수 있다. 어떤 품성이 도덕적으로 선하다거나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는 느낌이나 감정을 일으키는 경우는 오직 그 품성을 우리의 개별적 이익과 무관하게 일반적으로 고려할 때뿐이다. 낯선 사람들의 행복은 공감에 의해서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.

- ① 이성은 의지가 원하는 방향에 대해 어떤 차이도 만들지 못한다.
- ② 이성 단독으로 두려움의 정념을 통제하여 정서 안정에 기여한다.
- ③ 쾌락에 반응하는 자연적 본성은 인간의 도덕 원리가 될 수 없다.
- ④ 품성에 대한 평가는 그 품성이 관찰자의 마음에 끼친 영향의 결과다.
- ⑤ 개인의 승인 감정만으로도 공평한 도덕적 평가가 되는 데 충분하다.

18. 고대 서양 사상이 갑, 사회사상이 을의 이상 사회에 대한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<보기>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?

갑: 영혼에 세 부분이 있듯이 국가에도 세 부분이 있다. 철학자는 통치하고 군인은 국가를 방위하고 생산자는 생업에 힘쓴다. 이 세 부류 모두에 절제가 있어야 정의로운 국가이다.
 을: 초승달 모양의 섬에는 54개의 도시가 있다. 사람들은 하루에 6시간만 일하지만 누구나 노동에 참여하기 때문에 언제나 풍요로우며, 노동 이외의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한다.

<보 기>

ㄱ. 갑: 무절제한 사람은 정의로운 국가의 시민이 될 수 없다.
 ㄴ. 갑: 국가에 의한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타고난 지혜만으로 통치자가 될 수 있다.
 ㄷ. 을: 국가는 사유 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개인은 필요 이상의 노동을 하지 않는다.
 ㄹ. 갑과 을: 이상 국가에서는 시민들 간에 신분의 구분이 없다.

- ① ㄱ, ㄷ ② ㄴ, ㄷ ③ ㄴ, ㄹ
- ④ ㄱ, ㄴ, ㄹ ⑤ ㄱ, ㄷ, ㄹ

19. 다음은 한국 유교 사상이 갑, 을의 가상 대화이다. 갑,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<보기>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? [3점]



<보 기>
 ㄱ. 갑: 사단은 이(理)가 발함에 기가 올라타고(乘) 있는 것이다.
 ㄴ. 을: 기가 반드시 발해야만 도덕 감정(四端)이 드러날 수 있다.
 ㄷ. 을: 기의 국한성(氣局)은 두루 통하는 이의 속성(理通) 때문이다.
 ㄹ. 갑과 을: 이와 기는 구체적 사물에서는 결코 서로 분리될 수 없다.

- ① ㄱ, ㄴ ② ㄱ, ㄷ ③ ㄴ, ㄹ
- ④ ㄱ, ㄷ, ㄹ ⑤ ㄴ, ㄷ, ㄹ

20. (가), (나)는 근대 한국 사상이다. (가) 사상에 비해 (나) 사상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㉠~㉥ 중에서 고른 것은?

(가)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바꿀 수 없는 것을 도(道)라 하고, 때에 따라 변하고 바뀌는 것을 기(器)라 한다. 그러므로 만약 시대에 합당하고 백성에게 이익이 된다면 비록 오랑캐의 법일지라도 시행할 수 있는 것이다.
 (나) 내가 서양의 도를 듣고 두려워할 때, 밖으로 신령스러운 기운을 접하고 안으로 말씀이 내려왔지만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다. 그래서 마음을 가다듬고 기를 바르게 한(守心正氣) 후 물으니, “내 마음이 곧 네 마음이니라.”라고 하셨다.

- ① ㉠ ② ㉡ ③ ㉢ ④ ㉣ ⑤ ㉤

* 확인 사항
 ○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(표기)했는지 확인 하시오.